

[필리핀, 2013년 11월] [농식품]

□ 편의점·미니마트 시장이 크게 성장

- 필리핀 편의점 시장은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의 현대화와 거대한 시장참여로 인해 몇 년 동안 빠른 속도로 성장함.
- International Research Manager인 'Karlo Pobre'에 따르면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산업이 증가함에 따라, 접근용이성, 24시간 개방 영업, 다양한 편의성의 증가 등으로 젊은 층 소비자가 증가하였음
- 필리핀 국민들이 즐겨 먹는 치킨, 돼지고기, 튀김류를 편의점 내 간단한 식사가 가능하도록 마케팅을 함으로써 향후 영향이 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필리핀 주요 편의점 점포 수]

7 Eleven	979
Ministop	375
Family Mart	40

- 7 Eleven과 Ministop 편의점이 압도적으로 필리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2013년 Family Mart의 등장 및 점포 확대로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예상

□ 대상, 필리핀 네슬레社와 물엿 공급 계약

- 대상과 필리핀 리코 에퀴티즈(Ricor Equities)社 간의 합작기업인 대상 리코 코퍼레이션(Daesang Ricor Corporation, 이하 대상 리코)은 필리핀 네슬레社와 연간 5만여톤의 물엿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1월부터 본격적인 공급
- 필리핀의 연간 물엿 수요는 지난해 기준 약 15만 톤으로, 이를 활용해 캔디, 제과, 커피 등을 생산하는 네슬레, URC 등의 대형기업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음
- 특히 필리핀 식음료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인 연 800억 페소(한화 약 2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탄산음료 업종에서 꾸준히 전분당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지 전분당 업체 대부분이 옥수수를 단순 파쇄시킨 일반 전분당만을 생산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물엿을 비롯한 전분당류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음.
- 민다나오(Mindanao)섬은 물엿의 주요 원료인 옥수수 산지로서, 필리핀 전체 옥수수 생산량의 35%인 연 200만 톤이 생산

□ 필리핀 옥수수 수확 후 처리시설 준공

- 필리핀 민다나오 지방에 속한 Misamis Oriental(미사리스 오리엔탈 주)에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최로 '옥수수 수확 후 처리시설' 준공식을 가짐.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필리핀 지방 정부 프로젝트 담당 기관과 합작하여 국제농업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음

- 준공식에는 필리핀 농업부 Joel s. Rudinas 차관, Oscar Moreno 주지사, Redentor Salvaleon 시장을 포함하여 마을 주민 500여명과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식품부 관계자가 참여하였음
- Misamis Oriental(미사리스 오리엔탈 주)지방을 포함하여 필리핀 각 지방은 지금껏 논지에서 태양열로 옥수수를 건조하는 낙후된 방식을 사용하여 우기 시 발생하는 곰팡이로 인한 손실이 30%에 이르는 등 농가소득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 건립된 시설을 통해 옥수수 수확 후 건조-탈곡-저장의 전 과정이 자동화됨에 따라, 향후 농가소득 증대, 농외취업 기회 확대, 농가의 판매 교섭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됨

□ 필리핀 월드 식품박람회, 한국식품 선호도 높아

- 필리핀 세계 식품전시회 2013(WOFEX, World Food Expo)이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나흘 동안 World Trade Center와 SMX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 SMX Convention Center는 'WOFEX Marketplace' 개최장소로 가공식품, 냉동식품, 수입 식품, 프랜차이즈 제품 등이 전시되는 필리핀 최대 규모임
- 'PREMIUM KOREA'라는 테마로 고품격 이미지를 내세운 한국관에는 팔도, 한국 인삼 공사 등 약 10개 기업이 참가함. 전시품목으로는 농산물, 건강음료, 건강식품, 라면, 과자, 농산물, 막걸리와 같은 한국 전통식품이 주를 이루었음
- 한복을 입고 홍보를 하거나 전 세계로 수출된 한국 캐릭터인 뽀로로를 내세워 홍보하는 기업 등 한국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참관객의 관심을 끌었음
- 전시장 대다수는 유기농 과일, 생과일, 허브 등을 주재료로 하는 식품이 눈에 띄었음. 주재료의 영양소를 강조하는 마케팅은 최근 필리핀 식음료시장이 단순히 입맛을 고려하기보다 주재료 및 성분에 관심이 커졌음을 보여주는데, 이에 따라 다양한 과일 및 뿌리채소를 사용한 퓨전 한국 막걸리에 많은 현지인이 관심을 보여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
- 최근 필리핀의 유기농 식음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과일과 허브를 사용한 제품의 인기가 많음을 박람회를 통해 시사됨. 앞으로 외국 기업의 필리핀 유기농 식품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